

연습문제 02

[문제]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몇몇 → [면면]

㉡입력 → [임녁]

㉢끓는 → [끌른]

- ① ㉠~㉢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에는 각각 어떤 음운이 인접한 음운의 조음 방법을 닮아가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한 음운이 2회 이상 음운 변동을 겪는 사례가 나타난다.
- ④ ㉠과 ㉢은 모두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을 제한하는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 ⑤ ㉢은 ㉡과 달리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연습문제 03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과 ㉡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보기>

우리말의 음운 변동 양상으로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네 종류가 있다. 음운 변동은 한 단어 안에서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다음의 사례에서 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넓적하다 → [넙찌카다]

㉡낮일 → [난닐]

- ① ㉠과 ㉡에서 교체는 각각 두 번씩 일어났다.
- ② ㉠은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었지만 ㉡은 한 개가 늘었다.
- ③ ㉠과 ㉡에는 각각 두 종류씩의 음운 변동 양상이 나타난다.
- ④ ㉠과 달리 ㉡은 한 음운이 두 번의 음운 변동을 겪었다.
- ⑤ ㉠과 ㉡은 모두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의 조음 방법을 닮아가는 음운 변동을 겪었다.

연습문제 04

[문제] <보기>의 음운 변동 현상을 탐구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보기>

㉠ 발이랑 → [반니랑] ㉡ 불여우 → [불려우] ㉢ 녹막염 → [능망념]

- ① ㉠~㉢은 모두 첨가된 음운이 앞 음운의 조음 방법을 변화시키는 음운 변동을 겪었군.
- ② ㉠~㉢은 모두 한 음운이 뒤에 결합한 음운의 조음 방법을 닮아가는 음운 변동을 겪었군.
- ③ ㉠~㉢에서 일어난 모든 음운 변동 중 교체의 횟수가 첨가의 횟수보다 많군.
- ④ ㉠과 같이 ㉡에는 총 두 번의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군.
- ⑤ ㉠과 달리 ㉢에는 한 음운이 연달아 음운 변동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는군.

연습문제 05

[문제] <보기>의 각 음운 변동과 그 음운 변동이 드러나는 사례가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 ㉡ 한 음운이 탈락하여 없어지는 음운 변동
- ㉢ 한 음운이 새롭게 첨가되는 음운 변동
- ㉣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	㉡	㉢	㉣
①	강론 [강논]	깎다 [깍따]	밭일 [반닐]	급행열차 [그팽녔차]
②	격론 [경논]	잃는 [일른]	삿일 [상닐]	피어 [피여]
③	격리 [경니]	진열 [지녔]	별일 [별릴]	파릇하다 [파르타다]
④	숙려 [송녀]	굽고 [글꼬]	작열 [장녔]	굳히다 [구치다]
⑤	월장 [월짱]	맡게 [맡께]	낱지 [나치]	살살이 [삼싸치]

연습문제 06

[문제] <보기>의 음운 변동을 탐구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보기>

㉠ 닭도 (종다) → [닥또]

㉡ 닭과 (오리) → [닥파]

㉢ (책을) 읽다 → [익따]

㉣ (책을) 읽고 → [일꼬]

㉤ (밭을) 밟다 → [밥따]

㉥ (밭을) 밟고 → [밥꼬]

㉦ (밭을) 밟아 → [발바]

㉧ (돈을) 잃어 → [이러]

- ① ㉠~㉡을 통해 같은 겹받침일지라도 뒤에 결합하는 말의 음운적 특성에 따라 탈락하는 자음이 달라짐을 알 수 있군.
- ② ㉠~㉤을 통해 겹받침 뒤에 자음이 올 경우 탈락과 축약을 통해 음운의 수가 줄어들음을 알 수 있군.
- ③ ㉢~㉥을 통해 같은 겹받침일지라도 뒤에 결합하는 말이 가진 의미에 따라 탈락하는 자음이 달라짐을 알 수 있군.
- ④ ㉤~㉦을 통해 겹받침 뒤에 결합하는 말의 문법적 특성에 따라 탈락하는 자음이 달라짐을 알 수 있군.
- ⑤ ㉦~㉧을 통해 어떤 겹받침은 그것을 구성하는 두 음운이 모두 발음될 수 있는 환경에서도 한 음운이 탈락함을 알 수 있군.

연습문제 07

[문제] <보기>의 ㉠과 ㉡에 의한 음운 변동이 한 단어 내에서 모두 일어나는 것들로만 짝지어진 것은?

<보기>

우리말의 음운 변동은 그 양상을 기준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 그 변동의 원인에 의한 분류가 아니므로 같은 음운 변동일지라도 그 원인은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체 현상 중 하나인 비음화는 변동을 겪는 음운과 ㉠인접한 음운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같은 교체 현상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우리말이 가진 ㉡구조적 제약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

- | | | | | |
|------------|---|----------|---|----------|
| ① 값지다[갑찌다] | - | 푹는다[푹른다] | - | 앉는다[안는다] |
| ② 날날이[난나치] | - | 국거리[국꺼리] | - | 휘발유[휘발류] |
| ③ 숨이불[숨니불] | - | 밭이랑[반니랑] | - | 홀이불[혼니불] |
| ④ 값없이[가볍씨] | - | 끝없이[끄덥씨] | - | 한없이[하넉씨] |
| ⑤ 겪는데[경는데] | - | 휘젓는[휘전은] | - | 읽는지[잉는지] |

연습문제 08

[문제] 보기의 ㉠~㉤은 각각 공통된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나는 말끼리 짝지어진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 | |
|-----------------|---|-------------|
| ㉠ : 잃어버린 [이러버린] | - | 앉아눕다 [아라눕따] |
| ㉡ : 밭이랑 [반니랑] | - | 홀이불 [혼니불] |
| ㉢ : 닫히는 [다치는] | - | 만이 [마지] |
| ㉣ : 뱃사공 [배싸공] | - | 아랫사랑 [아래싸랑] |
| ㉤ : 깨끗하다 [깨끄타다] | - | 멋쟁이 [뎨쟁이] |

- ① ㉠ : 음절 끝의 제약으로 인해 겹받침의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 : 뒤 음운이 앞 음운의 조음위치에 닮아가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 : 뒤 음운이 앞 음운의 조음방법을 닮아가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 :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 현상이 일어난다.
- ⑤ ㉤ : 음절의 끝에서 7개의 대표 자음 중 하나로만 발음되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연습문제 09

[문제]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표준 발음법 중 일부 >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 홀-이불[혼니불] 막-일[망닐] 샷-일[상닐]

[붙임 1] ‘ㄹ’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음은 [ㄹ]로 발음한다.

…… 솔-잎[솔립] 설-익다[설릭따]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햇살[해쌀/햐쌀]

2.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 콧날[콘날→곤날] 뱃머리[뱌머리→뱐머리]

3.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니]으로 발음한다.

…… 깻잎[깻닙→깻닙] 나뭇잎[나뭇닙→나뭇닙]

- ① 제29항에 따라 식용유는 [시공뉴]로 발음한다.
- ② 제29항의 [붙임 1]규정에 따라 서울역은 [서울력]으로 발음한다.
- ③ 제30항에 따라 고갯길은 [고갠찢]으로 발음할 수 있다.
- ④ 제30항에 따라 뒷일은 [뒸닐]로 발음한다.
- ⑤ 제30항에 따라 맨입은 [맨닙]으로 발음한다.

연습문제 10

[문제] <보기>에 따라 표준 발음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표준 발음법 중 일부 >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 ㉠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 ㉡

[붙임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 ㉢

[붙임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 ㉤

- ① ‘불여우’의 표준 발음이 [불려우]라면 ㉠의 사례로 적절하겠군.
- ② ‘야금야금’의 표준 발음이 [야금냐금] 및 [야그먄금]이라면 ㉡의 사례로 적절하겠군.
- ③ ‘칼날’의 표준 발음이 [칼랄]이라면 ㉢의 사례로 적절하겠군.
- ④ ‘서울역’의 표준 발음이 [서울력]이라면 ㉣의 사례로 적절하겠군.
- ⑤ ‘물오리’의 표준 발음이 [무로리]이라면 ㉤의 사례로 적절하겠군.

연습문제 11

[문제] <보기>에 따라 표준 발음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표준 발음법 중 일부 >

제10항 겹받침 ‘ㄱ’, ‘ㄷ’, ‘래, ㄹ, ㅍ’,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 ㉠

다만, ‘뽕-’은 자음 앞에서 [뽕]으로 발음하고, ‘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 ㉡

제11항 겹받침 ‘ㄹ, ㅍ,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 ㉢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 ㉣

- ① ‘뽕다’의 표준 발음이 [뽕따]라면 ㉠의 사례로 적절하겠군.
- ② ‘넙고’의 표준 발음이 [넙꼬]라면 ㉡의 사례로 적절하겠군.
- ③ ‘넙어’의 표준 발음이 [넙버]라면 ㉢의 사례로 적절하겠군.
- ④ ‘읽히고’의 표준 발음이 [일키고]라면 ㉣의 사례로 적절하겠군.
- ⑤ ‘읽고’의 표준 발음이 [일꼬]라면 ㉣의 사례로 적절하겠군.

연습문제 12

[문제] <보기>에 따라 표준 발음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표준 발음법 중 일부 >

제19항 ㉠ 받침 ‘ㄹ, ㅍ’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ㄹ]으로 발음한다.

[붙임] ㉡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ㄹ]으로 발음한다.

제20항 ㉢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ㄴ]로 발음한다.

[붙임] ㉣ 첫소리 ‘ㄴ’이 ‘ㄷ’, ‘ㅌ’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다만, ㉤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 ① ‘공리[공니]’는 ㉠의 사례로 볼 수 있겠군.
- ② ‘격리[경니]’는 ㉡의 사례로 볼 수 있겠군.
- ③ ‘관리[괄리]’는 ㉢의 사례로 볼 수 있겠군.
- ④ ‘않는[알른]’은 ㉣의 사례로 볼 수 있겠군.
- ⑤ ‘성황리[성황니]’는 ㉤의 사례로 볼 수 있겠군.

연습문제 13

[문제] <보기>에 따라 표준 발음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표준 발음법 중 일부 >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 ㉡

제25항 어간 받침 ‘ㄹ, 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 ① ‘산새[산썩]’는 ㉠의 사례에 해당하겠군.
- ② ‘(스승으로) 섬기다[섬기다]’는 ㉡의 사례에 해당하겠군.
- ③ ‘(종이가) 얇다[얇따]’는 ㉢의 사례에 해당하겠군.
- ④ ‘결구結句[결꾸]’는 ㉣의 사례에 해당하겠군.
- ⑤ ‘발전發電[발전]’은 ㉤의 사례에 해당하겠군.

실력확인 서술형 01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어떤 단어 끝의 자음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게 되는 환경 세 가지를 각각 <유의사항>에 맞게 서술하시오. (10점)

<보기>

빛 [빈] 빛과 [빈ㅍ] 빛나가다 [빈나가다] 빛도 [빈또] 빛만 [빈만]
빛방울 [빈뽕울] 빛살 [빈쌀] 빛장 [빈짱] 빛천장 [빈천장] 빛판 [빈판]
빛이 [비시] 빛을 [비슬] 빛원뿔 [비뿔] 빛원기둥 [비뿔기둥]

<유의사항>

- ▶ 자신의 답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사례([발음] 포함)를 추가하여 서술해야 함.
- ▶ 세 가지 환경으로 <보기>에 나타난 사례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 각각의 환경들은 그 설명 영역이 서로 중복되어서는 아니 됨.
- ▶ 문제에 나타난 정보만으로 동어 반복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 ㅅ이 음절의 끝에 위치하는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게 된다.
※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채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안지]

환경1:

환경2:

환경3:

실력확인 서술형 02

[문제] <보기>의 ㉠과 ㉡에 모두 해당하는 음운변동의 사례를 한 가지만 들고, 해당 사례가 각각 ㉠과 ㉡에 부합하는 사례임을 그 구체적 과정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10점)

<보기>

동화는 한 음운의 소리값이 그것이 놓이는 음성 환경과 같아지는 쪽으로 바뀌는 음운변동을 총칭하는 말이다. 즉 동화란, 어떤 음운이 그것과 인접한 다른 음운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때 동화를 일으키는 음운을 ‘동화주’라 하고, 동화되는 음운을 ‘피동화주’라고 한다.

동화는 피동화주가 동화주와 가까워지는 정도에 따라 ㉠완전 동화와 부분 동화로 나눌 수 있다. 완전 동화는 피동화주가 동화주와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것이며, 부분 동화는 피동화주가 동화주를 닮아가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것이다.

동화는 피동화주와 동화주가 놓인 순서에 따라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로 나눌 수도 있다. 순행 동화는 동화주 뒤에 연이어 피동화주가 놓인 것이며, 역행 동화는 피동화주 뒤에 연이어 동화주가 놓인 것이다.

<유의사항>

- ▶ 문제가 요구하는 ‘사례’란 ㉠과 ㉡이 한 번의 음운변동에 모두 해당되는 것임.
- ▶ 한 단어 내에 여러 음운변동이 일어난 경우,
그 중 하나의 변동에 ㉠과 ㉡이 모두 적용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됨.
- ▶ 설명하고자 하는 사례에서 무엇이 동화주이고 무엇이 피동화주인지 명확히 적시할 것.
- ▶ 답안지의 → 기호는 음운변동 전과 후를 나타내는 기호임.

※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채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안지]

 / 전 / → [후]
㉠+㉡ 사례: / / → []

사례 설명:

[14~1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사는 크게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로 분류할 수 있다. 격 조사는 체언 등과 결합하여 앞에 오는 말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 주는 조사이다. 반면 보조사는 문장에서의 자격과는 관계없이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기만 하는 조사이다. 접속 조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기능을 한다.

격 조사가 부여하는 ‘자격’이란 곧 문장 성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격 조사는 다시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격 조사는 결합한 말을 주어로 기능하게 한다. 목적격 조사는 결합한 말을 목적어로 기능하게 한다. 국어에는 7종의 문장 성분이 있으므로 격 조사에도 일곱 가지가 있다.

보조사가 더해지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만’은 한정 의미, ‘도’는 역사의 의미를, ‘은’은 대조의 의미를, ‘요’는 상대 높임의 의미를 더해준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더해 주는 것이 보조사이다. 보조사는 다른 조사보다 결합 환경이 자유롭다. ‘너만을’처럼 격 조사 앞에 결합하거나 ‘너만은’처럼 다른 보조사 뒤에 연달아 결합할 수도 있다.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의 ㉣어미 뒤에 결합할 수도 있어 ‘살려만 주십시오!’와 같이 쓰일 수도 있다.

접속 조사는 결합한 말을 뒤에 이어진 말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기 때문에, 결합한 말을 뒷말의 문장 성분과 같은 자격으로 만들어 준다. ‘죄와 벌을’처럼 뒷말이 목적어라면 접속 조사가 결합한 말도 목적어가 되고, ‘너와 내가’처럼 뒷말이 주어라면 접속 조사가 결합한 말도 주어가 되는 것이다.

연습문제 14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문장에 ㉠, ㉡, ㉢이 모두 나타난 것은?

- ①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지금 이 순간 나타난다.
- ② 먹는 사람의 식성을 고려하여 소금과 후추의 양을 조절합니다.
- ③ 너랑 나랑은 지금 안 되지.
- ④ 내 가슴속 깊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이 있다.
- ⑤ 봄이 되면 개나리와 진달래가 가장 먼저 핍니다.

연습문제 15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밑줄 친 보조사의 쓰임이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나의 행동은 고의라기보다는 실수였다.
- ② 아이가 모형 비행기를 저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어.
- ③ 나는 그 옷을 처음 본 순간 반해서 만져도 보고 입어도 보았다.
- ④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치킨과 피자를 좋아했단다. 그 결과.....
- ⑤ 갑자기 비가 오니까는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

연습문제 16

[문제] 밑줄을 바탕으로 할 때, 밑줄 친 단어들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조사 중에는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게 하는 조사도 있다.
- ㉡ 조사 중에는 앞에 오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도 있다.
- ㉢ 조사 중에는 두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도 있다.
- ㉣ 조사는 앞말의 음운 환경에 따라 달리 선택되기도 한다.
- ㉤ 앞말에 둘 이상의 조사가 연이어 결합하기도 한다.

- ① ㉠: 나의 꿈은 그 누구보다 여행을 자주 가는 것이다.
- ② ㉡: 나처럼 한 사람만 사랑하세요. 딱 한 사람만.
- ③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어머니.
- ④ ㉣: 내가 걷는 곳의 곧 길이 된다.
- ⑤ ㉤: 목련이 피기까지는 아직 며칠이 더 필요하다.

연습문제 17

[문제] 밑줄 친 단어가 <보기>의 ㉠~㉣이 쓰인 사례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체언이다. 대명사에는 모르는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미지칭(未知稱),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부정칭(不定稱), 앞에 한 번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쓰는 ㉢재귀칭(再歸稱) 등이 있다.

- ① ㉠ : 저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처음 보는데요?
- ② ㉡ :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 ③ ㉢ :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나 있는 겁니까?
- ④ ㉣ : 그렇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 ⑤ ㉣ : 독한 마음을 먹으면 누구나 할 수는 있겠지요.

연습문제 18

[문제] 밑줄 친 말들이 <보기>의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우리말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각기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동일한 형태의 단어라도 문법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품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보험 가입, 전화만 주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 사람은 그리 심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 ② 그 사람, 나만 알고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모두들 오늘 저녁 비워주세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 ③ 문법 시험 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오늘 끝내야 한다.
- ④ 잠시 게임에 접속했는데 벌써 두 시간이 지났다.
나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 ⑤ 그저 바라만 보았을 뿐인데 이렇게 되었다.
나에겐 오직 그대뿐이다.

연습문제 19

[문제] 다음 중 밑줄 친 두 단어의 품사가 서로 같은 것은?

(단, 품사의 분류는 9품사 체계를 기준으로 함)

- ① 함박눈이 하늘에서 펑펑 내리고 있다.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 ② 단층집을 현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다.
중고차에 비하면 새 차는 값이 정말 비싸다.
- ③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 ④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피곤해하던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
- ⑤ 어제 책만 읽은 동생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다.
형이 책을 읽은 도서관은 집 근처에 있다.

연습문제 20

[문제] <보기>를 고려할 때 ㉠~㉤에 들어갈 용례로 적절한 것은?

<보기>

맨01 「관형사」 더 할 수 없을 정도나 경지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

㉠ _____

맨02 「부사」 다른 것은 섞이지 아니하고 온통.

㉡ _____

맨03 「어미」 『방언』 ‘-면10’의 방언(경상)

㉢ _____

맨04 「어미」 『방언』 ‘-마11’의 방언(제주)

㉣ _____

맨05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_____

-면10 「어미」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

㉠비가 오면 논을 갈자.

-마11 「어미」 해라할 자리에 쓰여, 상대방에게 약속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오후에 가마.

- ① ㉠ : 아이는 맨 놀기만 하였다.
- ② ㉡ : 이 산에는 맨 소나무뿐이다.
- ③ ㉢ : 다음에도 똑같이 맨 여기로 연락 주이소.
(표준어→다음에도 똑같이 역시 여기로 연락 주시오.)
- ④ ㉣ : 뭘 일 생기맨 전화하고에.
(표준어→무슨 일 생기면 전화하세요.)
- ⑤ ㉤ : 한 시민이 작업 중인 맨홀에 빠져 크게 다쳤다.

연습문제 21

[문제] <보기>를 고려할 때 ㉠~㉤에 들어갈 용례로 적절한 것은?

<보기>

(표준국어대사전의 일부)

이 [I] 「대명사」

「1」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 _____

「2」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 _____

「3」 ((복수 접미사 ‘-들’ 앞에 쓰여)) ‘이 사람’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 _____

[II] 「관형사」

「1」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_____

「2」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_____

- ① ㉠ :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 ② ㉡ : 이러한 경우에는 고객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 ③ ㉢ : 그들이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다.
- ④ ㉣ : 노력하는 자만이 성공의 기회를 가진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 ⑤ ㉤ : (도끼를 들고)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연습문제 22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단어를 분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간은 용언의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어근은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그런데 동일한 요소가 어간으로도 쓰이고 어근으로도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놀-’은 용언 ‘놀다’의 어간이면서 합성어인 ‘뛰놀다’의 어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때 용언 ‘뛰놀다’의 어간은 ‘놀-’이 아니라 ‘뛰놀-’이 된다.

- ① ‘돋우다’의 어근은 ‘돋-’이고 어간은 ‘돋우-’이다.
- ② ‘줄이다’의 어근은 ‘줄-’이고 어간은 ‘줄이-’이다.
- ③ ‘되찾다’의 어근은 ‘찾-’이고 어간은 ‘되찾-’이다.
- ④ ‘낮추다’의 어근은 ‘추-’이고 어간은 ‘낮추-’이다.
- ⑤ ‘달구다’의 어근은 ‘달-’이고 어간은 ‘달구-’이다.

연습문제 23

[문제]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접미사는 파생 접사의 하나로서 어근과 결합하여 피동이나 사동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피동이나 사동을 만드는 접미사는 상당히 다양하다. 그러나 하나의 어근이 그 모든 접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어근 ‘낮-’과 결합할 수 있는 사동의 접미사는 ‘-추’ 하나뿐이다. 이러한 피동 및 사동의 접미사 중에는 서로 형태가 같은 것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너를 ㉠먹이고 재우고 기르는 그 모든 일들이 참 행복하단다.
- 별에 ㉡쏘이는 것도 두렵지 않아. 꿈을 위해서라면.
- 새 옷을 사서 ㉢입히면 하루 만에 현 옷이 되곤 했어.
- 먹고 ㉣먹히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돕는 세상이 되었으면 해.

- ① ㉠에 쓰인 접미사는 어근 ‘먹-’ 뒤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고 있군.
- ② ㉡에 쓰인 접미사는 어근 ‘쏘-’ 뒤에도 결합할 수 있겠군.
- ③ ㉢에 쓰인 접미사는 어근 ‘입-’ 뒤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고 있군.
- ④ ㉣에 쓰인 접미사는 어근 ‘굳-’ 뒤에도 결합할 수 있겠군.
- ⑤ ㉣에 쓰인 접미사는 어근 ‘먹-’ 뒤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고 있군.

실력확인 서술형 03

[문제 1] <보기 1>에 나타난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여 나열한 뒤, 각 형태소 아래에 그것이 실질형태소라면 ㉠을 형식형태소라면 ㉡을 기입하시오. (15점)

[문제 2] <보기 1>에 나타난 어절을 근거로 하여 ㉠에 들어갈 말을 서술하시오. (15점)

<보기 1>
단팔죽을 사랑하는 그는 좋은 아버지다

<보기 2>
학생 1: 서술격 조사는 조사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것 같아.
학생 2: 체언 뒤에 결합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조사와 똑같은 것 같은데?
학생 1: 그렇기는 한데, 다른 조사랑 다르게 용언처럼 어미를 꼭 필요로 하더라고.
학생 2: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네. 어미를 필요로 하는 조사는 서술격 조사뿐이야.
학생 1: 그런데 용언과도 좀 다른 점이 있어. 하지만 뭔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
학생 2: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잖아?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를 어간으로 생각해본다면 서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을까?
학생 1: 고마워. 생각이 정리됐어. 서술격 조사는 반드시 어미와 결합해야 문장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언과 같지만, ㉠_____.

<유의사항>
▶ [문제 1]의 경우 아래와 같이 형태소 단위로 띄어 답안을 작성해야 하며 각 형태소는 반드시 본디 형태를 밝혀 적을 것. 또한 띄어 쓴 흔적을 반드시 v로 표기하고 그 아래에 ㉠ 또는 ㉡을 기입할 것,
(예시문) 아름다운 내 사람.
[답안지] 아름v답v은v나v의v사람
 ㉠ ㉡ ㉡ ㉠ ㉡ ㉠
▶ [문제 2]의 경우 답변의 근거를 반드시 <보기 1>의 어절에서 찾아 제시할 것.
※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채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안지]

[문제 1]: _____

[문제 2]: ㉠ _____

실력확인 서술형 04

[문제 1] 용언 ‘잘생기다’는 동사와 형용사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으나 국립국어원은 ‘잘생기다’를 동사로 규정하고 있다. <보기 1>과 <보기 2>를 모두 활용하여 ‘잘생기다’를 동사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5점)

[문제 2] <보기 1>을 참고하여 용언의 활용 양상에서 ‘잘생기다’와 유사한 용언을 찾아, 동사 및 형용사로서 지닌 성격을 각각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5점)

<보기 1>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할 때 몇 가지 차이가 발생한다. 먼저 형용사는 어간에 곧바로 ‘-다’만 붙인 기본형을 문장에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지만, 동사는 그렇게 쓰면 어색하다. 그리고 형용사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ㄴ’을 결합했을 때 시제가 현재로 인식되지만, 동사는 과거 시제로 인식된다.

<보기 2>

(동사)덮- + (명사)밥 = (명사)덮밥
(명사)값 + (동사)나가다 = (동사)값나가다
(명사)낮 + (형용사)설다 = (형용사)낮설다
(명사)하루 + (부사)빨리 = (부사)하루빨리

<유의사항>

- ▶ [문제 1]의 경우 <보기 1>에서 근거를 한 가지 추출하고, <보기 2>에서도 근거를 한 가지 추출하여 총 두 가지의 근거를 제시할 것.
- ▶ [문제 2]의 경우 <보기 2>는 답안에 활용하지 말 것.
※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채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안지]

[문제 1]: _____

[문제 2]: _____

연습문제 24

[문제]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우리 엄마는 아직도 발이 아프다’는 겹문장으로 볼 수 있어.
- ② ‘서점에는 날마다 새 책이 쏟아지고 있다.’는 겹문장으로 볼 수 있어.
- ③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마라.’는 겹문장으로 볼 수 있어.
- ④ ‘두 사람은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는 홑문장으로 볼 수 있어.
- ⑤ ‘어제 본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었어.’는 홑문장으로 볼 수 있어.

연습문제 25

[문제] <보기>의 문장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그는 내가 쓴 보고서가 잘못되었음을 정중하게 지적했다.

- ① 전성어미 ‘-게’를 통해 형용사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어.
- ② 전성어미 ‘-니’을 통해 관형절로 안긴문장을 만들었군.
- ③ 전성어미 ‘-음’ 대신 ‘-기’를 써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의미가 통해.
- ④ ‘지적했다’와 호응하는 주어는 ‘그는’이겠네.
- ⑤ ‘정중하게’를 생략해도 전체 문장은 성립하니까 ‘정중하게’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볼 수 없어.

연습문제 26

[문제]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
- ㉡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
- ㉢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 ㉣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 ① ㉠과 ㉡의 안긴문장에서는 부사가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 ② ㉠과 ㉢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③ ㉠과 ㉣의 안긴문장에서는 부사가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 ④ ㉡과 ㉢의 안긴문장은 필수적 부사어를 취하고 있다.
- ⑤ ㉢과 ㉣의 안긴문장에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

연습문제 27

[문제]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
- ㉡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
- ㉢ 누나는 털실로 짠 장갑도 내게 주었습니다.
-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

- ① ㉠과 ㉡은 안긴문장의 수가 같다.
- ② ㉠과 ㉢은 관형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③ ㉠과 ㉣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④ ㉡과 ㉢의 안긴문장이 수식하는 체언은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 ⑤ ㉢과 ㉣은 안긴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다.

연습문제 28

[문제]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
- ㉡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을 몰랐다.
- ㉢ 세상을 끝이 정해진 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 ㉣ 한국이 월드컵 4강전에 진출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 ① ㉠과 ㉡은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② ㉠과 ㉢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③ ㉠과 ㉣은 명사절로 안긴문장 속에 목적어가 있다.
- ④ ㉡과 ㉢은 부사어를 가진 안긴문장이 있다.
- ⑤ ㉢과 ㉣은 주어가 생략된 명사절이 있다.

연습문제 29

[문제]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바닷가에서 먹는 삼겹살은 그 맛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 ㉡ 내 생각과 달리 아이의 투정은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 ㉢ 당신이 그동안 꿈꾸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됩니다.
- ㉣ 오랫동안 굶었던 탓에 그는 밥이 먹고 싶었다.

- ① ㉠과 ㉡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과 ㉢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③ ㉠과 ㉣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④ ㉡과 ㉢은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⑤ ㉢과 ㉣은 안은문장의 서술어가 두 자리 서술어이다.

연습문제 30

[문제] 다음 중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찾을 수 없는 것은?

- ① 추운 겨울이 끝나고,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봄이 왔습니다.
- ② 엄마는 딸이 시험에 합격하면 어깨춤을 추겠다고 하셨다.
- ③ 손님으로 누가 왔으며 얼마나 왔는지 알아보아라.
- ④ 그의 전술적 실험은 혁신적이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 ⑤ 오고 가는 인사말 속에도 뼈가 있을 줄이야!

연습문제 31

[문제] 다음은 관형어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아버지는 어머니가 출장가시면 늘 걱정이다.
→ 절인 ‘어머니가 출장가시면’이 관형어로 쓰였군.
- ② · 그는 남에게 빚지고는 못 배기는 성미였다.
→ 절인 ‘남에게 빚지고는’이 관형어로 쓰였군.
- ③ · 비밀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새우튀김만 줬어.
→ 절인 ‘다른’이 체언인 ‘사람’을 수식하는군.
- ④ · 이번 방학에는 제주도에 가기로 결정했어.
→ 체언인 ‘이번’이 관형어로 쓰였군.
- ⑤ · 어떤 선생님은 소같이 일만 한다.
→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소같이’가 ‘일’을 수식하는군.

실력확인 서술형 05

[문제 1] 문장에서 단독으로 관형어로 쓰일 수 있는 서로 다른 품사 4개를 제시하고 그 예시를 각각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20점)

[문제 2] 위 [문제 1]의 답변에서 예시로 든 문장 중 2개를 골라 이어진문장의 형식으로 변형하여 서술하시오. (10점)

〈유의사항〉

- ▶ [문제 1]의 경우 품사를 ‘체언’ 등과 같이 쓰지 말고 9품사 체계 중 하나로 적시할 것.
예) [명 사]
- ▶ [문제 2]의 경우 [문제 1]에서 답한 4개의 문장 중 두 개를 골라 하나로 이어 쓰라는 뜻이며, 이때 다른 부분은 변형하지 말고 서술어의 어미만 연결어미로 바꾸어 쓸 것. 물론 중복에 의한 문장성분의 생략은 허용됨.
- ▶ [문제 2]의 경우 이어진문장의 종류를 간단하게 답할 것.
예) [대등절]

※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채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안지]

[문제 1]: [품 사] : / _____ 예시 _____ /

[] : / _____ /

[] : / _____ /

[] : / _____ /

[] : / _____ /

[문제 2]: [이어진문장의 종류] / _____ 예시 _____ /

[] : / _____ /

실력확인 서술형 06

[문제 1] <보기>의 ㉠과 ㉡은 모두 관형절을 포함하고 있다. 두 관형절의 차이점에 대해 문장의 구조와 문장성분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20점)

[문제 2] <보기>의 ㉠을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분석하여 각각 하나의 종결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10점)

<보기>

- ㉠ 모두가 아는 그 사실을 나는 모른다.
- ㉡ 그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를 나는 모른다.

<유의사항>

- ▶ [문제 1]의 경우 생략된 문장성분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서술할 것.
- ▶ [문제 2]의 경우 불필요한 문장성분을 추가하지 말 것.
- ▶ [문제 2]의 경우 안긴문장을 분석해 서술할 때 종결어미는 기본형으로 할 것.
※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채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안지]

[문제 1]: _____

[문제 2]: [안긴문장]: _____

[안은문장]: _____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통시적 음운 변화란, 기저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기저형이란 어떤 형태소를 음운론적 측면에서 대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를 말하는데 화자들이 실제로 발음하고 듣는 형태인 표면형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즉, 화자들이 머릿속에 지닌 어떤 형태소의 ‘기저형’이 ‘표면형’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음운의 변화는 공시적 음운 변동이라 할 수 있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언중들이 지닌 어떤 형태소의 ‘기저형’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통시적 음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통시적 음운 변화의 대표적인 예는 구개음화이다. 공시적 구개음화는 앞말이 ㄷ이나 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모음 또는 ‘반모음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해야 한다는 정교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루어진다. 반면 통시적 구개음화는 ㄷ이나 ㅌ 뒤에 ‘ㅣ’모음 또는 ‘반모음ㅣ’가 결합하기만 하면 교체가 이루어져 그 조건에서 차이를 보인다.

근대국어 시기에 와서 통시적 구개음화가 나타나게 된 것은 자음체계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중세국어 시기에 ‘ㅅ, ㅆ’은 ‘ㅅ’과 같이 치음이었다. 자음체계에 구개음 자체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구개음화도 일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ㅣ’계열 모음 앞에서 ‘ㅅ, ㅆ’이 구개음으로 발음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반모음ㅣ’ 및 ‘ㅣ’모음은 구개음과 그 조음위치가 유사하기 때문에 설음 ‘ㄷ, ㅌ’이 이들 모음에 동화되어 ‘ㅅ, ㅆ’으로 교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17세기부터 광범위하게 일어났으며 18세기에는 기존 문헌의 ‘디, 티’ 표기가 모두 ‘지, 치’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19세기에 이르면 이전까지 문헌에서 엄격히 구분되어 표기되었던 ‘자’/‘쟈’, ‘저’/‘져’, ‘조’/‘쵸’, ‘주’/‘쥬’, ‘차’/‘챤’, ‘쳐’/‘쳐’, ‘초’/‘쵸’, ‘추’/‘쥬’ 등이 혼동되어 쓰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또한 ‘ㅅ, ㅆ’의 조음위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구개음이 ‘반모음ㅣ’와 그 조음위치가 유사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전과 달리 ‘ㅅ, ㅆ’ 뒤에 결합한 단모음과 ‘ㅣ’계열 이중모음의 발음을 구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혼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모음ㅣ’가 탈락된 형태의 표기로 정착된다.

‘반모음ㅣ’ 탈락 현상과 통시적 구개음화는 자음체계의 변화라는 공통된 배경을 지녔으면서도 그 시기를 달리하여 발생하였다. 이러한 시기적 차이는 ‘ㅅ, ㅆ’의 조음위치 변화가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연습문제 32

[문제] 윗글을 참고하여 중세국어 어휘의 통시적 변화 양상을 추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단, 성조의 표기는 고려하지 않음)

중세국어	17~18C	19C	19C 이후
① 다르다	쟈라다	쟈르다/쟈라다	자르다
② 도타	쵸차	조차/쵸차	조차
③ 뒤다	쥬다	주다/쥬다	주다
④ 둥디	둥지	둥지/둥지	둥지
⑤ 자랑	쟈랑	자랑/쟈랑	자랑

연습문제 33

[문제]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디혜 > 지혜 / 티다 > 치다 ㉡ : 만이→[마지] / 붙이다→[부치다]
 ㉢ : 마디 > 마디 / 버티우다 > 버티다 ㉣ : 아츰 > 아침 / 즐다 > 질다
 ※ 기호 >는 통시적 음운 변화를, →는 공시적 음운 변동을 나타낸다.

- ① ㉠~㉢을 비교해 볼 때 통시적 구개음화는 공시적 구개음화와 달리 음운론적 결합 조건이 더 다양하였군.
- ② ㉠~㉢을 비교해 볼 때 통시적 구개음화는 공시적 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군.
- ③ ㉠~㉢을 비교해 볼 때 통시적 구개음화는 공시적 구개음화와 달리 2음절 이하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겠군.
- ④ ㉠과 ㉢을 비교해 볼 때 ㉠은 실질형태소와의 결합 조건에서도 통시적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은 형식형태소와의 결합 조건에서만 공시적 구개음화가 일어남을 보여 주는군.
- ⑤ ㉠과 ㉢을 비교해 볼 때 ㉠은 모음에 동화된 자음의 통시적 교체가 나타나고 ㉢은 자음에 동화된 모음의 통시적 교체가 나타나는군.

연습문제 34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표준 발음법> 제5항 ‘ㅈ ㅉ ㅊ ㅋ ㅌ ㄱ ㅓ ㅕ ㅗ ㅛ ㅜ ㅠ ㅡ’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쨌, 처’는 [저, 쨌, 처]로 발음한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용례 대조표

job 잡(X)	job 잡(O)	jersey 저지(X)	jersey 저지(O)
jordan 조던(X)	jordan 조던(O)	juice 쥬스(X)	juice 주스(O)

- ① <표준 발음법>에서 현대국어에 쓰인 ‘저, 쨌, 처’를 [저, 쨌, 처]로 발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난 표기상의 혼동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겠군.
- ② <표준 발음법>에서 [저, 쨌, 처]로 발음해야 할 ‘저, 쨌, 처’를 용언의 활용형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른 품사에서는 더 이상 ‘저, 쨌, 처’와 같은 표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겠군.
- ③ <외래어 표기법>에서 ‘ㅈ’ 뒤에 이중모음을 결합한 형태의 표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통해 외국어에는 이중모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④ <외래어 표기법>에서 ‘ㅈ’ 뒤에 이중모음을 결합한 형태의 표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통해 구개음 뒤에서 이중모음을 발음할 수 없는 외국어의 구조적 제약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표준 발음법>과 <외래어 표기법> 모두 구개음 뒤에 이중모음이 결합한 형태와 단모음이 결합한 형태 사이의 혼란을 정리하고 반모음이 탈락한 형태로 통일하려는 의도가 있군.

연습문제 35

[문제] 다음은 중세국어 자료를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흔 거름 나소 거름 (한 걸음 나아가도록 걸음)
→ 현대국어와 달리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 파생 접미사의 형태가 서로 같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 내 王 말씀 듣좁고사 (내가 왕의 말씀을 듣고서야)
→ 현대국어와 달리 ‘내’ 뒤에서 주격 조사가 탈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 世尊의 請하스보디 (세존께 청하되)
→ 현대국어와 같이 초성 자리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자를 나란히 쓸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 슬흔 父母의 받즈온 거시라 (살은 부모님께 받은 것이라)
→ 현대국어와 같이 부사어를 높이는 선어말어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 부텃 威力을 님스바 (부처의 위력을 입어)
→ 현대국어와 달리 관형격 조사로 ‘스’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연습문제 36

[문제] ㉠과 ㉡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네 스승이 누고 (네 스승이 누구인가?) / 얻논 약이 므스것고 (얻는 약이 무엇인가?)
- ㉡ 이논 賞가 罰아 (이것은 상인가 벌인가?) / 이 썩리 너희 좃가 (이 여아가 너희 종인가?)

- ① 중세 국어 시기에는 현대 국어에 없는 관형격 조사가 존재하였다.
- ② 중세 국어 시기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객체를 높이는 문법 요소가 다양하였다.
- ③ 중세 국어 시기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주체를 높이는 문법 요소가 부재하였다.
- ④ 중세 국어 시기에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의 의문 보조사가 서로 달랐다.
- ⑤ 중세 국어 시기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도 주격 조사로 ‘이’가 나타나는군.

실력확인 서술형 07

[문제 1] <보기>의 ㉠~㉣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양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시를 각각 한 가지씩만 서술하시오. (15점)

[문제 2] <보기>의 ㉠~㉣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양상을 차례로 겪은 ‘나물’이라는 현대어가 있다. 이 단어가 15세기 문헌에는 어떻게 표기되었을지, 자신의 추론 과정을 순차적으로 밝혀 서술하시오. (15점)

<보기>

- ㉠ 16세기에 이르러 둘째 음절 위치 이하의 모음 ‘·’(아래아)는 ‘ㅡ’로 바뀌었다.
- ㉡ 17세기에 이르러 양순음에 결합한 모음 ‘ㅡ’는 ‘ㄴ’로 바뀌었다.
- ㉢ 18세기에 이르러 첫째 음절 위치의 모음 ‘·’(아래아)는 ‘ㅏ’로 바뀌었다.

<유의사항>

- ▶ [문제 1]의 경우 ‘>’ 기호를 활용하여 변화 전 후를 표기할 것.
- ▶ [문제 2]의 경우 세로쓰기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보기>와 관련하여 자신의 추론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채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안지]

[문제 1]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문제 2] _____

실력확인 서술형 08

[문제] <보기 1>을 근거로 하여 <보기 2>의 문장 ㉠~㉥ 중 15세기 중세국어 문법에 어긋난 것을 세 가지 찾아 바르게 고쳐 쓰고, 각각에 대한 수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30점)

<보기 1>

15세기 중세 국어에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선어말어미 ‘-습-’이 존재하였다. ‘-습-’은 선어말어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간과 다른 어미 사이에 놓이게 되는데 어간의 끝이 어떤 음운인지, 뒤에 결합한 어미가 어떤 음운으로 시작하는지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어미 관련 조건		어미 첫소리의 음운적 특성	
		자음	모음
어간 말음의 음운적 특성	ㄱ, ㅂ, ㅅ, ㅎ	-습-	-습-
	ㅈ, ㅊ, ㄷ, ㅌ	-줍-	-줍-
	모음 및 ㄴ, ㄹ, ㄷ	-습-	-습-

<표> 선어말어미 -습-의 분포

<보기 2>

㉠ ㅎㅂㅅ 나아가샤 모던 도즈글 물리시니이다
 ㉡ 엇던 因緣(인연)으로 如來(여래)를 나쓰ㅂ시니잇고
 ㉢ 正法(정법) 듣습고져 發願(발원)호디
 ㉣ 내 아래브터 부텃기 이룬 마를 못 듣즈브며
 ㉤ 꾸메 부텃 모물 보즈브니

<유의사항>

- ▶ 어간 말음 및 어미의 초성과 같은 음운론적 조건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 ▶ 현대어 풀이는 할 필요 없으며, 답안을 적을 때 한자는 한글로 그 음만 옮겨도 됨.

※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채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안지]

고쳐 쓴 문장 1. _____

수정된 이유 :

고쳐 쓴 문장 2. _____

수정된 이유 :

고쳐 쓴 문장 3. _____

수정된 이유 :

파란문법(1쇄) 정오표 (2020.09.28.)

- 정오표 1~9의 사항은 2쇄에서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 2쇄를 구입하신 분들은 10, 11번만 확인하세요.

1. <21쪽> 표준발음법 제26항 관련

다만~ 이하의 서술이 제24항의 다만~ 이하 서술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제26항의 실제 다만~ 이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2. <42쪽> 고난도 연습문제 10번 선택지 ①~⑤번

10 선택지 ①~⑤번 서술이 연습문제 2번의 것으로 잘못 인쇄되어 있습니다. 본 부교재의 연습문제 10번 선택지를 참조하세요.

3. <51쪽> 4.2.1 격조사 단락의 (부사격) 세 번째 줄 밑줄

(수정 전) 칼로(씨) 사과를 깎는다. 교사로서 그런 복장은 적절하지 않다.

(수정 후) 칼로(씨) 사과를 깎는다. 교사로서 그런 복장은 적절하지 않다.

4. <52쪽> 4.2.3 보조사 단락의 첫 번째 줄 밑줄

(수정 전)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수정 후)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5. <63쪽> 연습문제 17번 선택지 ③번 밑줄

(수정 전)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수정 후)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6. <64쪽> 연습문제 19번 선택지 ③번 밑줄

(수정 전)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

(수정 후)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

7. <91쪽> 연습문제 26번 발문

(수정 전) <보기>의 음운 변동 현상을 탐구한 것으로 옳은 것은?

(수정 후)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8. <92쪽> 연습문제 29번 선택지 ①~⑤번

29번 선택지 ①~⑤번 서술이 연습문제 27번의 것으로 잘못 인쇄되어 있습니다. 본 부교재의 연습문제 29번 선택지를 참조하세요.

9. <115쪽> 연습문제 5번의 선택지 ③번 ㄴ 해설

진열[지널]의 표준 발음은 [지널]이 맞습니다. ㄴ첨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외적 사례입니다. 따라서 ㄴ첨가가 이루어져 [진널]이 된다는 해설에서 단순히 연습이 되어 [지널]이 되므로 아무런 음운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해설로 정정합니다.

10. <49쪽> 4.1. 체언 단락의 용례 해설

(수정 전) ‘나’, ‘너’ = 대명사, ‘때’ = 명사, ‘하나’ = 수사

(수정 후) ‘나’, ‘너’ = 대명사, ‘때’ = 명사, ‘하나’ = 명사

수효를 세는 맥락이 아니라면, ‘하나’는 명사로 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뿐이다’, ‘뜻을 하나로 모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등의 ‘하나’는 모두 명사로 쓰인 예시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의 ‘나는 죽을 때까지 너 하나뿐야,’의 ‘하나’도 명사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음은 수사로 쓰인 ‘하나’에 대한 예문입니다.

▶필통에서 연필 하나를 꺼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다. ▶사과 두 개 중 하나만 먹어라.

11. <115쪽> 연습문제 5번의 선택지 ㉔번 ㄴ 해설

(수정 전) ㅇ탈락, 유음화

(수정 후) **자음군단순화**, 유음화